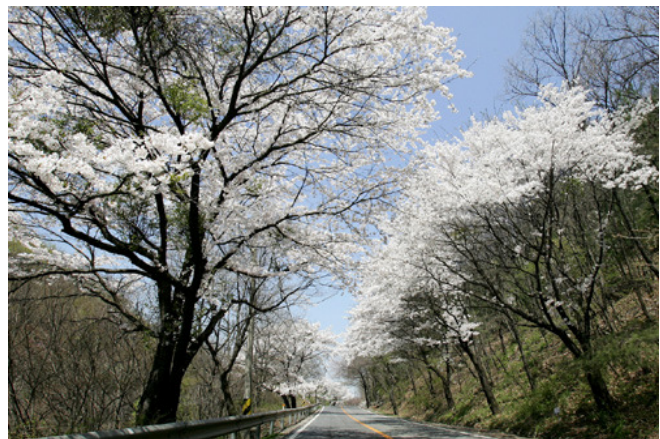


안녕하세요 김지원 입니다. Sparkling Korean 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서울은 날씨가 오늘 아주 따뜻했어요. 여의도에 벚꽃이 활짝 피었다고도 하네요. 보통 이맘때 즈이면 벚꽃이 전국 곳곳에 피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화사하게 핀 벚꽃을 보러 가는 것을 두고 “ 벚꽃놀이 간다” 라고도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거죠.

“ 벚꽃보러 가야하는데” 또는

“ 벚꽃놀이 하러 가고 싶은데 “ 이렇게 말이죠.



아! 오늘 방송에선 영어를 하지 않을 거예요. 한번은 영어로, 한번은 한국어로 녹음 할거예요. 제가 스크립트를 인터넷에 올려놓을 테니까 다운로드 받아보세요. 부할 때 영어뉴스를 틀어놓고 따라 읽기 연습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하다가 어렵거나 따로 저한테 물어볼게 있으면 메일 보내시구요. 자 시작할까요?

몇일전에 야구장에 친구랑 다녀왔어요. 비록 제가 응원한 팀은 졌지만 그래도 간만에 가는 야구구경이라 재미있었어요. 응원하면서 소리도 치고, 욕도하고, 예쁜 치어

리도 봤어요. 아아... 좋아라.



친구랑 만나서 무엇을 같이 하기전에 어디서, 언제 만나자는 약속을 하죠? 오늘을 약속하기 를 같이 해볼게요.

내일 시간이 있냐고 친구한테 물어볼까요 얘기할수 있어요.

“ 내일 시간있어?” 내일 시간 있어?” 이걸...반말이죠. 그럼 조금 정중히 물어볼까요?

“ 내일 시간 있어요?” “ 내일 시간 있어요?” 끝이 조금 다르죠? 있어? 있어요? “요” 가 뒤에 붙으면서 반말을 바꾸어 주었어요. 다시 연습해 볼까요?

“ 내일 시간있어?” “ 내일 시간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친구가 이렇게 대답하네요.

“ 어 나 내일 시간 있어” “ 어 나 내일 시간 있어” 이렇게 대답하면 좋은데 시간이 없다고 할수도 있겠죠? 그건 어떻게 할까요? 들어보세요

“ 아 미안. 나 내일 시간이 없어” “ 아 미안, 나 내일 시간이 없어. “ 음. 시간이 없

다네요. 이말은 내일 할게 있다던지 아니면 내일 다른 약속이 있다던지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만약 친구가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무슨뜻일까요? 내일 특별히 할게 없으니까 나를 만날 수 있다는 얘기겠죠? 자 그럼 이렇게 물어보세요.

“ 아 그래? 그럼 우리 내일 7시에 강남역에 볼까?” 좀 길쭉? 한번더 들어보세요

“ 아 그래? 그럼 우리 내일 7시에 강남역에서 볼까?”

라고 말했어요 이걸 내가 상대방이 한말을 확인해 줄 때 써요. 그러니까 친구가 시간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다시 확인한 거죠.

“ 그럼 우리 내일 7시에 강남역에서 볼까? 보통 7시라고 하면 저녁을 의미해요. 아침 7시부터 만나서 노는 경우는 흔하지 않거든요. 강남역은 서울에서 가장 놀기 좋은 곳이에요. 왜냐하면 교통편이 잘 되어있어서 늦게 까지 술마시고 집에갈 수 있고요 술집도 많거든요. 아! 예쁜 여자들이랑 멋진 남자들도 많아요! 히히히히



“ 그래 그러자 근데 왜? “

친구가 내 제안을 승낙했어요. 그래. “그러자” 는 그렇게 하자 의 줄임말 이에요. 그러자 그렇게 하자. 둘 다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요.

“ 응 그냥 술한잔 하자고” “ 응 그냥 술한잔 하자고”



응. 그래 는 둘다 똑 같은 뜻이에요. 둘다 영어의 yes 같은거죠. 그냥 은 “**별뜻없이**” 또는 “**특별한 이유 없이**” 를 나타낼 때 써요. “**술한잔 하자고**” 우리는 보통 “**술 마시러 가자**” 보다는 “**술 한잔 하러 가자**” 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그 이유는... 제 생각에 왜 소주를 한잔씩 마시잖아요. 소주 마시는게 익숙한 한국사람들은 술 하면 소주를 생각하고 소주 한잔 마시다가 한잔 마시다 로 바뀐거 같아요. 이렇게도 많이 물어봐요.

“**야 우리 술한잔 하러갈까?**”

“**야 우리 술 한잔만 하고 가자**”

둘다 한잔 만 하자고 하는데 한잔이 두잔되고 두잔이 두병되고 뭐 그런거죠.

그럼 대답은 “**좋아**” 나 “**싫어**” 둘중에 하나가 나오겠죠
만약에 친구가 좋아라고 한다면, 들어보세요

“**그래 좋아 7시에 강남역에서 보자**” “**그래 좋아 7시에 강남역에서 보자**”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 좋아 라고 말하면서 확인을 했고, 시간과 약속장소를 말했어요. 시간은 7시고 약속장소는 강남역 이었죠. 다시한번 해볼까요?

“**그래 좋아 7시에 강남역에서 보자**”

만약 친구가 싫다고 하면 어떤 대답을 할까요?

“**싫어 술을 어제 너무 많이 마셔서..그냥 같이 밥이나 먹자**” 라고 할 수 있겠죠. 친구가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내일 7시에 만나서 그냥 밥이나 먹자라고 하는 대답이었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싫어. 술을 어제 너무 많이 마셔서...그냥 같이 밥이나 먹자**”

대화를 한번 더 들려 드릴게요 잘 들어 보세요~



A: “ 내일 시간있어?”

B: “ 어 나 내일 시간 있어

A: “ 아 그래? 그럼 우리 내일 7시에 강남
역에서 볼까?”

B:“ 그래 그러자 근데 왜? “

A:“ 응 그냥 술한잔 하자고”

B:“ 그래 좋아 7시에 강남역에서 보자”

오늘 방송 어땠나요? 많이 힘들었죠? 많이 답답했을거예요. 근데 제생각에 이렇게 해서 한국어 읽기하고 듣기가 익숙해 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무슨애긴지 몰라도 계속 듣고 따라 읽고 하다보면 어느순간 알아듣게 될 거예요. 힘내요! 아자 아자!

지금이 일요일 11시 13분 이네요.. 모두들 잘자요~ 안녕~